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공사비 절감 위해 설치”

감사원, 항공안전 취약분야 감사 결과

국토부, 보완 요청에도 개선 없이 준공 공항공사, 현대화사업 과정 오히려 보강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사고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의 설치 이유가 ‘공사비 절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감사를 통해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정비 ▲항공 종사 인력 ▲조류 충돌 및 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 주의 7건, 통보 18건 등 총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착륙하도록 활주로 중심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로 활주로 끝



이용택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 브리핑룸에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에 설치된다. 방위각을 제공하는 안테나와 안테나를 지지하는 기초대(기초구조물)로 구성된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 성능(취약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안공항을 비롯한 일부 지방공항 건설 시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토공사 물량을 줄임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를 뒀다. 이에 따라 로컬라이저 설치를 위한 활주로 최상단과의 높이 차를 둔덕을 쌓아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 검토도 없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허가한 이후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KAC에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AC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보강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 같은 로컬라이저의 기초구조물(콘크리트 둔덕)이 개항 당시와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 후 공항 운영 증명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기존 미달 설치계획을 검토 없이 승인하며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실시 계획 검토, 승인 업무와 준공 확인 전 사용허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류 충돌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3년부터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도입한 KAC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대상을 공항 내부에서 포획·분산한 실적이 있거나 공항 내부에서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에 대해서만 평가 대상에 반영하도록 결정했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 위험평가가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 퇴치인력이 공항 내부에서 가장오리를 포획·분산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KAC는 충돌 발생 가능성을 ‘0’으로 산정하며 위험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철새지리정보 통계를 이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주변에 출몰한 조류 평균 27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장오리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조류로 나타났다. 실제 참사 당시 사고지역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장오리의 깃털과 현흔이 발견됐다. /양서원 기자

삼성SDS 컨소시엄, 국가AI컴퓨팅센터 우선협상자 선정

해남 솔라시도 부지 2조9천억 투입 2028년 완공 GPU 1만5천장 先구축

전남도는 10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삼성SDS를 주관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쉐어리쉬, 썬케이티, 전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참여해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9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8년까지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천장 이상을 우선 구축, 2030년까지 추가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구축되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되는 AI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돼 전남·광주가 글로벌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 ▲AI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국가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시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절차 등 각종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첨단산업의 거점이자 ‘AI 에너지 수도’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서원 기자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

목포 대양산단 200억 투입 10월 완공

전남도는 글로벌 선박 시장의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10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사진〉 착공식에는 김기홍 전남도 전라산업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최정훈·최선국 도의원,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실증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천370㎡, 연면적 1천280㎡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10월 완공 목표로 한다.

실증센터에는 중대형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

스템과 통합 성능평가 설비 등 해상 환경을 구현한 실증 장비가 구축된다.

또 암모니아 연료공급 기자재의 성능평가와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지원, 관련 기술 표준화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실증센터 구축으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기술 실증과 인증이 가능해져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의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라산업국장은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전남을 친환경 선박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市, 160억 투입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2026 국제교류 활성화 시행계획’ 의결

광주시가 올해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광주글로벌청년캠프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 51개 과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열어 ‘2026년 국제교류 활성화 시

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광주시의 국제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목표로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분야별 지원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광주의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연계된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협력사업 내실화(35개 과제), 시민참여 내향적 국제화(7개 과제), 국제화 교류 기반 조성(9개 과제) 등 3대 전략 5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과제로 중국 광저우시 자매도시 체결 30주년 기념행사,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 광주글로벌 청년캠프 등을 추진한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유상증자 결의사항 공고문

본 법인은 2026.3.10 이사회에서 정관 제 12조의1, 상법 제418조 2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바,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신주식의 배정일의 2주전인 금일 이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703주
- 신주식의 발행가액: 신주식 1주의 금액 금 300,000 원
- 신주식납입일(배정일): 2026년 3월 26일
- 주금납입방법: 차입금(원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상계를 통한 자본전환
- 신주식의 인수방법: 제3자 배정
- 배정받을 제3자 및 배정주식의 수: 서울보증보험(주) 703주
- 위외의 신주식발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6년 3월 11일
남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광 아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를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